

새해 밝았지만 금리 부담 여전... 새로운 대출제도 '눈길'

5대 시중은행 취약차주 대상
1년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억원도 특례보증자리론 출시

올해도 금인인상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에 도입되는 대출제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1일 한국은행과 월가의 10개 투자은행(IB)은 대체로 오는 3~5월까지 연준의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최종 금리 수준은 5.0~5.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형은 연 5.52~7.48%로 8%에 육박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 5~7% 수준까지 뛰었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도 7%를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대출지원책과 함께 개정된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고금리 특례보증자리론 주목

먼저 정부가 올해 특례보증자리론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례보증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보증자리론, 적

(정책 모기지 개편)

상품	현행			개편
	우대형 안심 (일반형, 당초계획)	보증자리론	적격대출	특례보증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9억원*)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5억원*)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1억원 (없음*)	7천만원	없음	없음
금리	3.8~4.0% (보증금리-10bp*)	4.25~4.55%	4.55~6.91%**	단일금리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잠정. **2022.11.1 기준 적격대출 금리 상단. /금융위

격대출을 합친 상품이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저조하자 올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특례보증자리론 형태로 출시하기로 했다.

특례보증자리론은 집값 9억원에 소득요건은 폐지하고, 대출한도 역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서울에서도 특례보증자리론 대상이 되는 주택이 예전보다 늘었다. 기존 정책모기지 상품의 주택가격 기준은 6억원 이하로 돼 있어 서울에서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1년 동안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가계대출(주택담보·전세자금·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에 한해 올 1월부터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한은행도 올 1월 신용등급 하위 30%인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시행 기간은 1년이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금리 상단이 1%포인트(p) 인상되지만, 서민권의 분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취약차주의 부담은 덜도록 했다.

◆서민권, 인상 이자 60% 부담

서민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은 연 10.5%에서 연 11.5%로 1.0%p 인상된다. 다만 서민권이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최대 1.0%p)의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금리 상단인 연

10.5%에 근로자 햇살론을 실행한 차주는 서민권 보증료인 2.0%p를 더해 연 12.5%의 금리를 부담했다. 올해부터 이 차주는 대출금리 상단인 연 11.5%에 인화된 서민권 보증료율 1.4%p를 더해 연 12.9%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또한 대출금리 상한을 1.0%p 인상하기로 했으나, 서민권이 보증료율을 1.0%p 인하해 대출금리 인상분을 모두 부담한다.

특히 서민권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의 한도 확대 적용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빚을 갚고 대출을 최소화하는 자산관리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정책 변화와 대출 목적, 소득 변화 등에 따라 대출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한용구 행장 첫 지시... "이체 수수료 면제" "리스크 관리 최우선, 경영 내실 다져야"

(신한은행)

신한은행, 고객중심 경영 사업 박차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평생 무료

신한은행이 모바일 앱 뉴솔(New SOL)과 인터넷뱅킹의 이체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고객은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시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시 건당 300원씩 납부하고, 거래 기준 등 수수료를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새로 취임한 한용구 은행장이 전임 은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계승, 발전하는 첫 사업으로 한용구 은행장의 결단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됐다.

한 은행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리딩뱅크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한은행 전경. /신한은행

역할을 어떻게 할건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객 중심은 신한이 일류 기업으로 가는데 가장 커다란 대명제"라며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작년 7월 이후 금리인상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하고 있다.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금리, 연 5%로 일괄 감면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1년말 대비 0.5%p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 이자유예 ▲취약차주 전세자금대출 금리 0.4%p인하 ▲서민금융 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금리 1.5%p인하 등이 대표적인 '고객중심' 금융지원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년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리스크관리 ▲경제적 방어막 역할 수행 등을 꼽았다.

김광수은행연합회 회장(사진)은 "금융산업도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상품, 조직, 문화, 전략을 재정비하고, 경영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는 날카로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제전망과 관련해 "올 한해 글로벌 거시경제가 수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만큼 금융산업도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와 자금시장 경색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맞이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으로 촉발된 금융산업 경쟁구도의 변화가 뉴노멀로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빅테크와 핀테크가 금융시장의 여전한 플레이어로 안착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은 더욱 다채로운 상품을 출시하며 기존 은행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은행 또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고 소비자 니즈를 제고하는데 앞장서게 될

김 회장은 리스크관리와 관련해 "금융권은 작년 중 총당금 기준을 개선해 대손충당금 규모를 선제적으로 늘렸으나 가계 및 한계기업의 상환능력 저하 등 실물 부문 부실 확대에 대비해 크레딧라인을 재점검하고 산업별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상품, 조직, 문화, 전략을 재정비하고, 경영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데이터수집·분석체계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조직의 결합(M&A)과 분할(Spin-off), 업무위탁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고령자 안전교육 이수시 車보험료 할인

금감원 Q&A

고령·장애인에 유익한 상품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세제혜택

Q. 고령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A. 고령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는 보험료 할인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 할인과 관련한 정보

입니다.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차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줍니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제 혜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소득세법상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해보세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 예·적금, 금융투자상품, 보험 등에도 적용됩니다. /구남영 기자

신임 기업은행장에 김성태 전무이사 내정

중소기업은행장에 김성태 현 기업은행 전무이사(사진)가 내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김성태 현 기업은행 전무이사를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 26조에 따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내정자는 기업은행에서 약 33년간



재직하면서 소비자보호그룹장, 경영전략그룹장, 전무이사 등 주요보직을 거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소비자 중심 업무관행 정착 등 중소기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했다. /나유리 기자